

전국을 하나의 창조도시로!

- 지역 상생발전 전략



송병락 songbn@snu.ac.kr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 songbn@snu.ac.kr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및 부총장 역임.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동아시아경제 강의).
국제연합(**UN**), 세계은행(**IBRD**), **ADB** 등 자문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정책실장,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산업공학과 대우교수.

KBS해설위원(비상임), 공정거래위원, 국민연금위원회위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자유기업원 이사장.

통역장교 근무, Bank of America(세계최대은행)근무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리서치 펠로우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영대학원 수료
미국 남 캘리포니아 대학원 경제학박사.

저서; Oxford 대와 Harvard대 출판. 국내저서 17권

기타; 제1회 중앙공무원교육원 **BEST강사**(제1호 2010년)

순 서

1.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2.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법
3.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간 직선 고속철도 건설
4. 고속철도의 Global Competitiveness
5. 고속도로는 <7 by 9 프로젝트> 완성
6. 수도권·지방격차 문제의 근본 해결책
7. 「밀어내기 식 성장」과 「끌어들이기 식 성장」의 조화
8. 전국을 하나의 아름다운 창조도시로

1.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 3만 달러, 1조 달러의 시대

- ① 수출 \$1억⇒\$5천억. 소득 \$100⇒ \$31,410(2011, 구매력)
기업가 역량 발휘; 세계제일은 한국!
지도층 파괴;
1차 일제 35년간, 2차 6.25전쟁
- ② 3만 달러, 1조 달러, 1,173조원 시대
세계경제 영향력; 독, 영, 불과 같다
- ③ 실업자 〇〇〇명, 자살자 33 ⇒ 42명
- ④ 10대 그룹 435개사 총자산 :
\$7,917억 ⇔ GE \$7,818억(2009년).
\$1.07조, 468개사
- ⑤ 외국인 소유; 삼성전자 51.2%, 82%(우)
포스코 49.2%
- ⑥ 은행 수; 스위스 350, 한국 18
Global 1000; 스위스 37, 한국 12



1인당 GDP : IMF 2011



한국

EU평균

일본

G7

미국

중국

\$ 31,410

\$ 31,197

\$ 34,646

\$ 40,818

\$ 48,666

\$ 8,289

소프트 파워가 중요한 단계





少女時代 JAPAN DEBUT

NEW SINGLE 『^{ジニー}GENIE』 2010.9.8発売



GIRLS' GENERATION
 GIRLS' GENERATION

2. 문제 해결의 두 가지 방법

① Triz 또는 오퍼레이션 방법

옛날 청계천을 예로 들면,

그대로 두면서 오염 방지, 악취 방지 등의
체계적 대책 수립.

② 전략적 해결책

옛날 청계천을 없애므로써

모든 대책을 필요 없게 함.

신 청계천 건설로 관광, 휴식 자원을 창출함.

3.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간 직선 고속철도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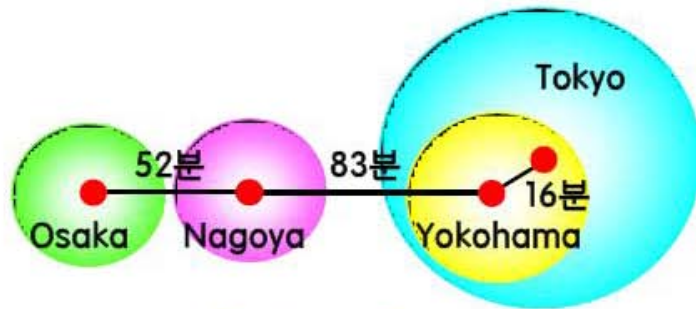
- ①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간 직선 고속철도 건설
마그레브(500여km), 135분에서 **60분**으로 단축.
 - ② 도쿄·오사카간을 **하나의 선형도시**로 개발. 노선 확정.
 - ③ **독일 정도의 경제권 형성.**
 - ④ 21세기 국가 프로젝트(?).
-
- ③ 고속철도 속도 : 일본은 시속 500km, 한국은 250km(?)
 - ④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수출은 불가능.**
한국은 세계 4대 고속철도기술 보유국(?)

참고. 국토연구원 외, 『한국경제 60년사 - 국토환경분과』 4차보고서 2009.9.1
오재학·허재완·곽재원, 『**전국을 하나의 창조도시로** - KTX경제권 발전전략』,
2012.

오재학, 『KTX 네트워크 기반 지역 발전 구상 : **메트로폴리탄 시티 코리아**』

일본의 도쿄-오사카간 선형도시개발

도쿄와 오사카 거대경제권의 통합 추진 중



<MAGLEV 건설 전후 통행시간 변화>

- 500km/h 자기부상열차 (MAGLEV) 투입
- 도쿄~오사카 구간 통행시간
135분→60분으로 단축
- 도쿄~나고야~오사카는 경제권을 넘어
출근권으로 변모 (2025년)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

베이징, 상하이 경제권 연계 및 1일 생활권으로 통합 추진 중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노선〉

- 창장(長江) 삼각주 경제권과 환보하이(環渤海) 경제권이 1일 생활권으로 통합
- 2013년 항저우~홍콩 연장선 개통으로 동부 연안도시 경제권 통합

4. 고속철도의 Global Competitiveness

한국도 **시속 500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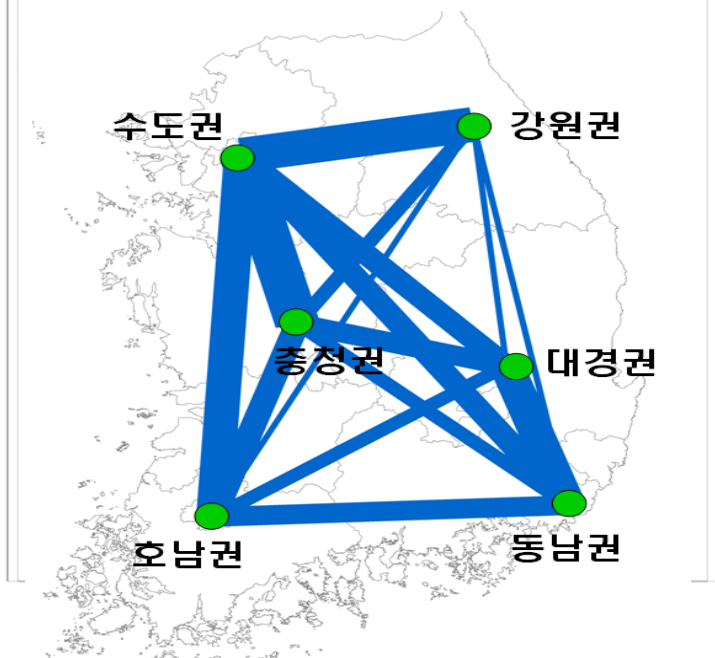
- ① 경부간(고속도로 428km)은 1시간 이내의 거리(현 2시간 18분)
- ② 경부간 및 서울·목포(또는 여수간)간 **직선 신선** 건설.
- ③ 한국경제규모 : **GNI 1,200조원**.
신선 건설비용 **21조원**
예 : 국토 종단 3개, 2개의 횡단 2개 노선 건설(105조원 ?)
- ④ **전국이 하나의 도시가 됨.**
- ⑤ 수도권과 지방격차 문제 해소 방법은
수도권자체를 없애는 것.

국가철도망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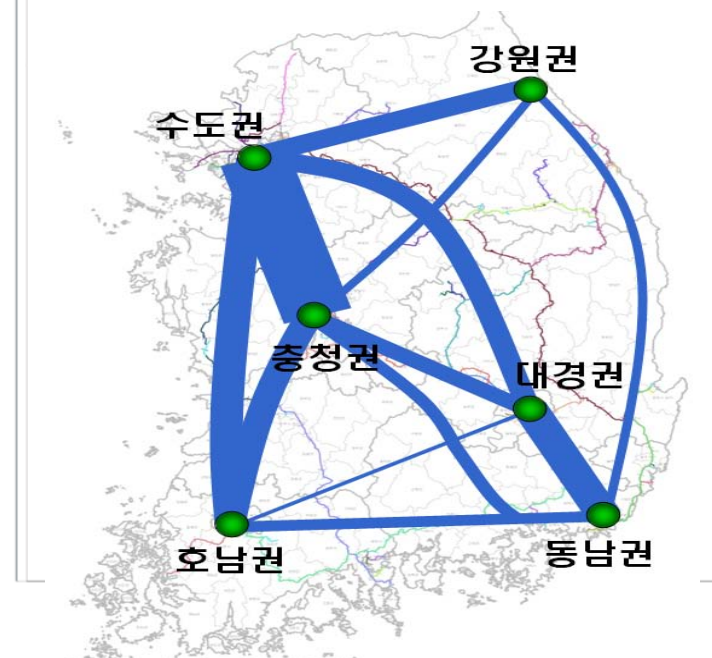
국토 최단거리 연결 X자형 + □자형 결합노선 도출

- 권역별 통행량 분석, 경제적 편익, 속도경쟁력, 균형발전 등 고려 -

광역경제권간 통행희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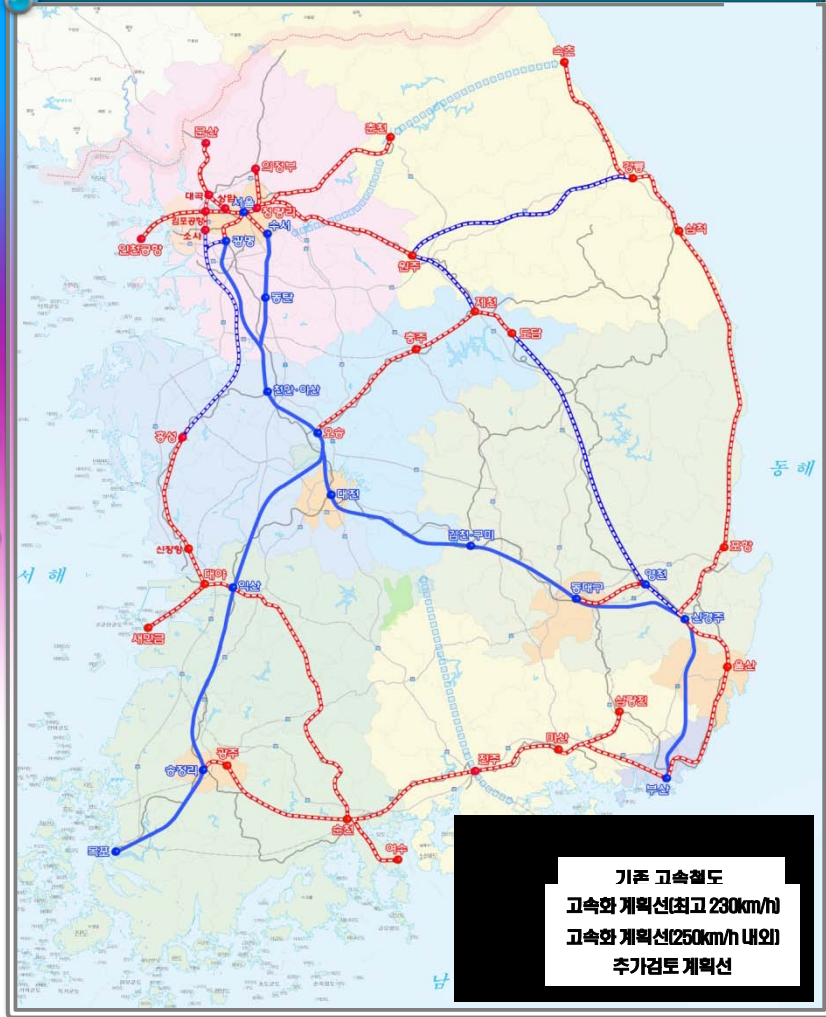
국가철도망 구상



국가철도망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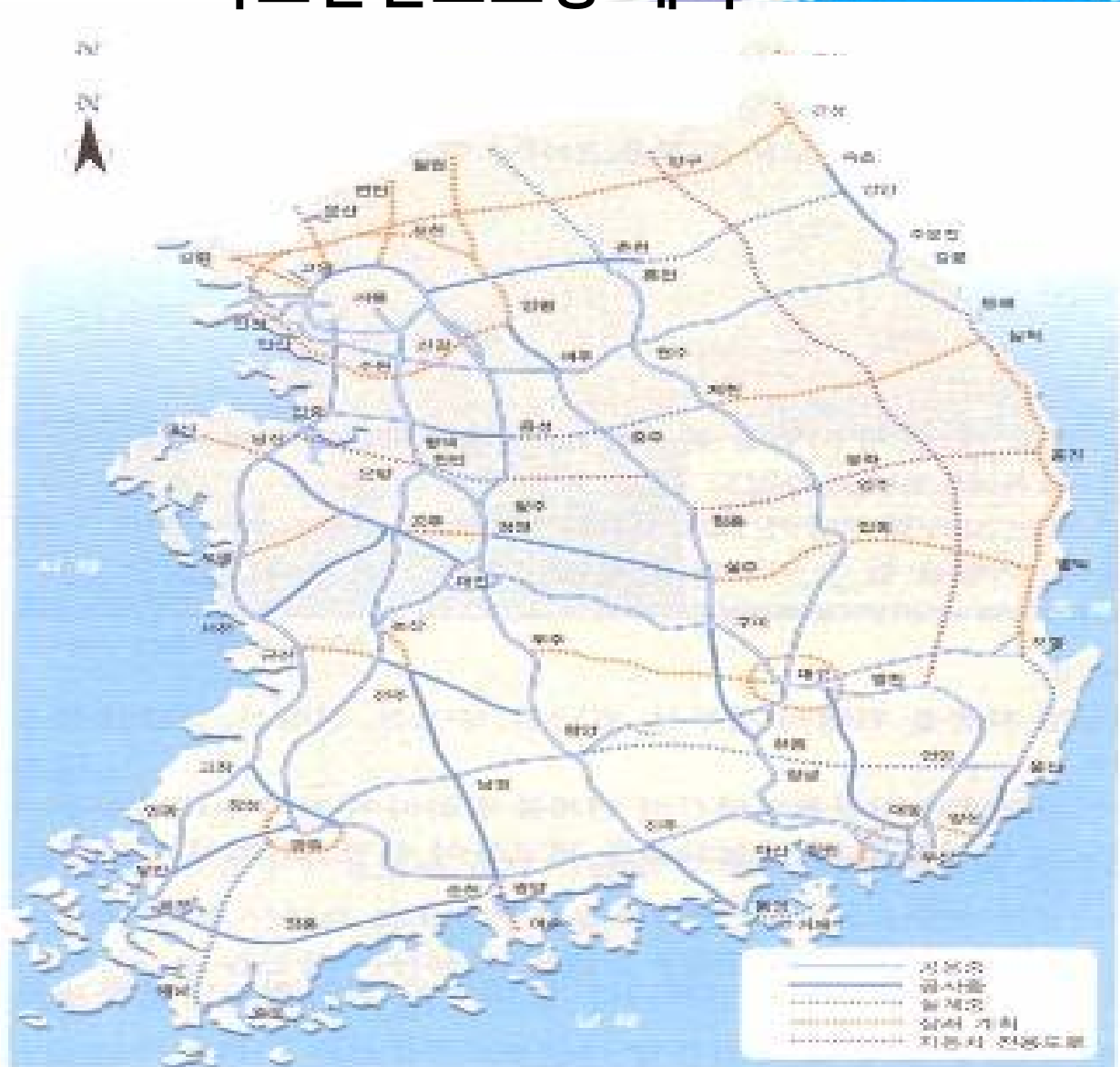
KTX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5. 고속도로는 <7 by 9 프로젝트> 완성

- 국토 횡단 고속도로 9개, 종단 7개 건설 완료.
- SOC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기회가 없음.
건설 회사 경기 침체, 고용 기회 창출 부진.
- 고속 KTX 신선 건설이 필요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년)』. 2006.

6. 수도권·지방격차 문제의 근본 해결책: 수도권 자체를 없애는 것

- 중국 중경시 : 면적 82,300km², 인구 3,300만.
- 한국 : 면적 100,124km², 하나의 창조도시 가능.

휴대폰으로 보면 서울과 지방의 차이 없음.

- John Cao 하버드 경영대 교수. 미국 전체를 하나의 창조도시로!
- KTX를 한국경제도약의 발판으로!

7. 「밀어내기 식 성장」과 「끌어들이기 식 성장」의 조화

- 수출주도형은 <밀어내기 식> 성장. <밀어내기 식> 성장의 한계. <끌어들이기 식> 성장과 균형이 필요.
- 스위스는 외국 돈, 국제기관, 관광객 끌어들임.
싱가포르는 외국기업, 기술, 사장, 학자 모두 끌어들임
- 중국관광객 2010년 4,800명, 2020년 1억. 2015년 1억 ?
- 끌어들이기식 시설. K팝 시설, 한방·양방의료시설, 태권도 시설, 중·일 문화시설, 비무장지대 생태공원 시설 등.
제3세계 군사훈련시설, 새마을 연수시설 등.
한중일 역사문화시설, 코리아 경제 발전 모델시설 등.
한국에 오면, 중국, 일본과 동아시아를 알게 된다.
한국에 오면, IT, 세계 전쟁사를 다 안다.
중국 부자들이 가족과 같이 올 수 있는 나라로.

8. 전국을 하나의 아름다운 창조도시로

- 스위스 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
 - 강석진 GE회장과 프랑스 화가들
- 국민소득 ₩1,200조 ⇒ ₩2,400조
- 국토 및 지역발전 4.0을 제 2도약의 기회로!
- 지역상생발전이 Cost item인가, Asset 과 투자인가?
- 외국의 사례; 철도건설을 국가도약의 기회로 활용
 - 영국 1804 증기기관차의 도입과 철도건설
 - 미국 1869 대륙횡단 철도건설
 - 일본 1964 신간선 건설
-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1776>
 - 국부 ⇒ 생산성 ⇒ 분업 ⇒ 시장 ⇒ 수송
- 전 국토를 하나의 창조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미, 중, 일, 러 중 한국 뿐!



ROSE OF SHARON, 송락무궁화, 日新 日日新 又日新



Rose of Sharon, 구약성서
Song of Songs, BC 970
무궁화의 종류는 300+
매일 새로운 꽃,
한철 3,000 송이
화분 · 울타리 · 가로수 용
신품종 수출 시작.
하버드대 정문 앞 대표 꽃집
송(병)락 무궁화
2년 된 신 품종

▲ Byung-Nak Song, 송병락 ▲

전국을 하나의 창조도시로!

- 지역 상생발전 전략

You Can Find a Way
or Create One.

감사합니다
songbn@snu.ac.kr